



[뉴스] 안심먹거리 비건푸드 '대체육 시장'이 뜨다 02



Economy

코스피	2124.04 (-13.14)	코스닥	661.37 (-3.23)
금리 (미국 3년)	1.50 (-0.02)	환율 (원/달러)	1166.80 (+9.30) (11일)

'경기 바닥쳤다' 시그널 2題

대한민국 경제가 '저점'을 통과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시중 자금은 채권, 금 같은 안전자산에서 '고수익 고위험'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시작으로

얼어붙은 산업에도 조금씩 활력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최근 분위기와 함께,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

1 시중자금 '머니무브' 꿈틀

<안전자산→위험자산>

美·中 협상, 경기회복 기대감에 안전자산서 위험자산으로 이탈 금값 g당 3개월 새 10.6% 하락 채권형 펀드도 밀물처럼 빠져

<채권형펀드 수익률 및 설정액 추이>

단위: 설정액(억원), 수익률(%)

유형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이후
국내 채권형	수익률	-0.12	-0.52	-0.55	0.92	1.88
	설정액 증감	-672	-8,879	-7,289	43,224	98,176
해외 채권형	수익률	-0.00	-0.47	0.34	3.52	8.41
	설정액 증감	-128	2,313	14,844	39,056	47,668

에프앤가이드

시중 투자자금 흐름이 3개월 만에 바뀌었다. 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쏠리던 자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미·중 무역협상이 순항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지난 8일 금 현물시장(KRX금시장)에서 g당 가격이 5만481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900원(1.6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 가격은 꾸준히 하락 추세다.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금이 부각되면서 지난 8월 13일 6만1300원까지 올랐던 거래 가격은 3개월 새 5만

4810원으로 10.6% 하락했다.

거래량도 줄었다. 지난 8월 하루 평균 96억9300만원에 달하던 거래대금은 10월 27억5100만원으로 줄어들더니 현재까지 11월 하루 평균 거래량은 25억5400만원으로 반의 반 토막이 났다.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가격 역시 하락세다. 이에 따라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은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국내 채권형 펀드 269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0.52%로 나

타났다. 채권형 펀드 투자는 최소 손실이 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락에 따른 투자자 부담은 크다.

이에 따라 자금 이탈이 가파르다. 연 초 이후 시중 자금을 무섭게 빨아들이면서 설정액이 9조 8176억원 늘어났지만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자산은 순유출세로 접어들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설정액은 8879억원 줄었다. 순유입세를 유지하던 해외 채권형 펀드에서도 최근 일주일만에 순유출세로 전환, 설정액이 128억원 줄어 들었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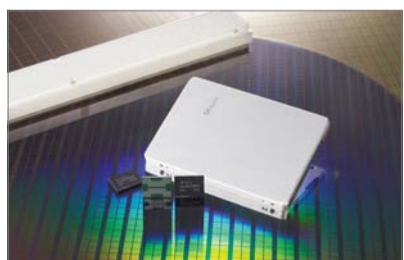


2 '불황터널' 마침표, 슈퍼사이클 기대

韓주력산업이 살아난다

<上> 비온 뒤 굳어지는 반도체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판매 상승 위기 속 꾸준한 투자로 내실 다져



128단 4D 낸드플래시를 활용한 제품군.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경제 핵심으로 꼽힌다. 수년간 반도체 호황으로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으면 수출 전선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

반도체가 1년 여만에 불황의 터널을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꾸준한 투자를 통해 '조격차'를 이어나갈 결과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내실을 채우고

미래 준비도 마무리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올 들어 20~30% 급등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불황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최근 몇달 사이에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저점론'은 이미 2·4분기부

터 쏟아져나왔지만, 실제 힘을 얻게된 것은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다. 반도체 업계가 입을 모아 판매량이 상승 전환했다고 발표하면서다.

3분기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SK하이닉스 매출액은 전분기보다 각각 8%, 6% 성장했다. 출하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양사는 재고 수준도 빠르면 올해말에서 늦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정상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모리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업계에서는 서버 업체들이 재고를 상당수 소진했고, 5G 스마트폰 생산이 본격화하면서 조만간 메모리 수요도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

中 광군제 열풍... 1시간 만에 16조 매출



중국 저장성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의 프레스를 화면에 '11·11(쌍십일) 쇼핑 축제'가 11일 오전 0시에 시작되고 나서 1분 36초 만에 거래액이 100억 위안(약 1조6천566억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잉737NG 항공기 100대 점검완료

동체균열 13대 운항정지 내년 1월까지 모두 수리

국토부, 나머지도 25일까지 검사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B737NG 항공기 중 100대에 대해 점검을 끝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까지 누적비행횟수가 2만회 이상인 79대와 2만회 미만 21대 등 보잉의 B737NG 항공기 총 100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에 따라 동체 균열이 발생한 13대에 대해서는 제작사인 보잉에 균열 정보를 즉시 보내 기술검토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보잉에서 수리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긴급수리팀을 보내 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리를 진행 중에 있다.

균열 항공기에 대한 수리방법은 균열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방식이며 수리기간은 1대당 약2주가 소요되고 내년 1월초에 결함항공기 13대 모두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항공사마다 수리장소는 다르며 대한항공·진에어는 국내의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제주항공·이스타항공은 보잉사와 수리장소 등을 협의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이날 항공기 수리현장인 대한항공 정비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보잉 737NG 동체

문제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인만큼 항공사에 보다 완벽한 수리·정비를 통해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누적비행횟수가 2만 2600회 이하인 비행기 36대의 점검결과 모두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전 확보에 조금의 오차도 없도록 2만회 미만인 나머지 50대도 오는 25일까지 모두 점검해 국내에 등록된 150대 전체에 대한 검사를 조기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 시 문제가 없었던 보잉 737NG 항공기도 같은 점검부위를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서 비행횟수 3500회 이내에 균열 여부를 반복 점검 하도록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향후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수행토록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해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지된 항공사에서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등 운항관리 부분에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